

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<h1>보도자료</h1> | | | 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 |
| | 보도 | 2017.11.6(월) 조간 | 배포 | 2017.11.3(금) |
| 책임자 |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신진창(02-2100-2990) | 담당자 | 최치연 사무관(02-2100-2991) | |
| |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장 최재학(02-2128-8015) | | 장지현 팀장(02-2128-8022) | |
| |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부장 김기성(02-750-1141) | | 고동현 수석(02-750-1142) | |
| |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지원부장 김태수(051-794-3500) | | 양동근 팀장(051-794-3420) | |

제 목 : 청년·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

- 청년·대학생은 주로 생활비·주거비·취업준비자금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
- 청년의 고금리금융기관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, 연체경험률도 다른 연령 대비 높음
- 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·대학생 햇살론 총공급한도 확대 등 '청년·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'을 연내 확정·발표할 계획

I. 개요

-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* 등에 따라 청년·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
 - ※ 만 15~29세 실업률은 9.2%로 전체 실업률(3.4%)를 상회('17.9월 고용동향)
- ➔ 학업·취업준비·주거 등과 관련된 청년·대학생의 금융 이용 현황을 파악한 실태조사*를 토대로 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
 - * '12년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 실태조사에 이어 5년만에 재조사
 - * 금융위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

- (내용) 금융 이용 실태와 함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수입·지출, 근로, 주거 관련 현황을 조사
 - 고금리금융기관,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이용 현황도 파악
 - * 조사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확대하였으며, '12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, 주거, 일반 금융이용 현황 조사가 포함
- (방법) '17.5.29~6.23일중 청년·대학생 1,700명 설문조사(한국갤럽)
 - * (청년) 전국 만 19~31세의 성인남녀 중 대학생이 아닌 자 850명
 - * (대학생) 전국의 대학생(2년제·3년제·4년제) 850명
 -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이용 현황은 전체 설문조사에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토론식 심층집단면접조사* 병행
 - * ①장학재단 학자금대출 ②신복위 채무조정 ③청년·대학생 햇살론 ④행복기금 채무조정 이용 청년·대학생 그룹별로 토론식 조사

II. 주요결과

1 자금흐름 현황

◆ 생활비, 학자금, 취업준비자금 수요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

□ (청년) 평균 흑자(월 68.3만원)에도 불구하고 60% 이상이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나,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

- ① (수입) 월 100~200만원인 경우(40.7%)가 많으며, 평균 월 157.6만원
 - * 월 30만원 미만 4.0%, 월 30만원~50만원 8.7%, 월 50만원~100만원 13.2%, 월 100만원~200만원 40.7%, 월 200만원 이상 33.4%
 - 수입원은 급여인 경우가 다수이나, 용돈·아르바이트 수입에도 의존
 - * 급여 69.8%, 사업소득 4.1%, 용돈 20.1%, 아르바이트 12.1%
- ② (지출) 월 50~100만원인 경우(42.9%)가 많으며, 평균 월 89.3만원
 - * 월 30만원 미만 4.7%, 월 30만원~50만원 12.6%, 월 50만원~100만원 42.9%, 월 100만원~200만원 35.8%, 월 200만원 이상 4.0%
 - 생활비 비중이 높으며, 교육비·주거비 순으로 많은 비중
 - * 생활비 73.6만원, 교육비 6.9만원, 주거비 5.5만원, 대출상환금 3.0만원

◆ **청년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**이고,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**상당 준비기간이 소요**

- ③ **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(61.3%)이 대학생보다 높으며, 주요 원인은 생활비, 취업준비자금 및 주거비**
 - * 생활비 79.5%, 취업준비자금 13.4%, 주거비 10.4%, 대출상환 8.4%, 학자금 4.0%, 기타 7.3%
-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부모·친지 도움을 얻거나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
 - * 부모·친지 도움 51.1%, 해결 않음 34.5%, 추가 근로 14.0%, 대출 5.0%, 장학금 1.0%, 기타 1.7%

□ **(대학생) 지출(등록금 포함)이 수입을 초과(월평균 52.1만원)하나 부모 등의 도움으로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**

- ① **(수입) 월 30~50만원인 경우(47.1%)가 많으며, 평균 월 50.1만원**
 - * 월 30만원 미만 8.9%, 월 30만원~50만원 47.1%, 월 50만원~100만원 39.8%, 월 100만원~200만원 3.5%, 월 200만원 이상 0.7%
- 수입원은 **용돈·아르바이트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**
 - * 급여 1.4%, 사업소득 0.2%, 용돈 88.4%, 아르바이트 30.4%
- ② **(지출) 월 100~200만원인 경우(48.2%)가 많으며, 평균 월 102.2만원**
 - * 월 30만원 미만 0.6%, 월 30만원~50만원 4.2%, 월 50만원~100만원 44.6%, 월 100만원~200만원 48.2%, 월 200만원 이상 2.4%
- **교육비(등록금 포함) 비중이 제일 높으며, 생활비도 상당 비중 차지**
 - * 교육비 55.4만원, 생활비 36.8만원, 주거비 9.6만원, 대출상환금 0.2만원

• **연간 학자금 수준은 다수(74.4%)가 500~1,000만원 수준이며, 학자금 납부는 부모에 의존(88.1%)하는 경우가 많음**

- * 500만원 미만 22.8%, 500~1,000만원 74.4%, 1,000만원 이상 2.8%
- ** 부모 88.1%, 장학금 27.6%, 본인 6.0%, 대출 6.0%, 친인척 등 0.6%

※ 일반대학 연평균 등록금 668.7만원, 재학생 1인당 장학금 329.8만원 ('17년 대학알리미)

- ③ **생활비, 학자금 등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(51.3%)**
 - * 생활비 93.3%, 학자금 20.0%, 취업준비자금 5.3%, 주거자금 4.4%, 대출상환 1.6%, 기타 1.4%
-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부모·친지 도움으로 해결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
 - * 부모·친지 도움 75.5%, 장학금 16.1%, 해결 않음 14.4%, 추가 근로 14.0%, 대출 3.7%, 기타 2.1%

□ **(청년) 약 5명 중 1명(19.7%)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, 특히 실업률(9.2%)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**

- * 일을 하고 있다 80.4%, 구직활동 중이다 9.2%, 일도 안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 10.5%
- ※ 전체 실업률은 3.4%, 20대 실업률은 9.2%('17.9월 고용동향)
- 고용형태는 **상용근로(계약기간 1년 이상) 비중이 높은 편(근로자의 72.3%)**
 - * 상용근로(계약기간 1년 이상) 72.3%, 임시근로(계약기간 1개월~1년) 21.7%, 일용근로(계약기간 1개월 미만) 1.6%, 사업 4.4%
 - ※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67.2%('17.9월 고용동향)
- 다만, **취업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수(근로자 및 구직중인 자의 45.6%)**
 - * 6개월 미만 54.4%, 6개월~1년 27.9%, 1~2년 12.0%, 2년 이상 5.8%
 - ※ 임금근로자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1.6개월('17.5월 청년층 부가조사)

○ **청년 중 다수(60.2%)가 취업준비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, 주요 원인은 생활비, 취업준비자금**

- * 생활비 84.1%, 학원비·교재비 25.8%, 학자금대출 상환 7.4%, 일반대출 상환 3.1%, 주거비 8.7%, 기타 5.9%
- 특히, **현재 구직중인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음(구직중인 자의 80.8%)**

□ **(대학생) 약 4명 중 1명(26.6%)이 학업 외에 일을 하고 있으며, 대부분(근로자의 95.1%) 임시·일용근로(계약기간 1년 미만) 형태로 고용됨**

- * 일을 하고 있다 26.6%, 구직활동 중이다 0.8%, 일도 안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 72.6%
- **학업 외 근로시 대부분 자기계발보다는 용돈·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근로(근로자의 98.7%)하여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**
 - * 용돈 73.9%, 생활비 49.1%, 학자금 16.4%, 미래 준비 3.1%, 주거비 2.7%

3 주거 현황

◆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경우 대부분 월세를 이용

□ 약 4명 중 1명(22.9%)이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며, 대부분 월세를 이용

* 월세 51.0%, 기숙사 19.5%, 전세 13.6%, 자가 11.0%, 기타 4.8%

□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경우 주거비가 전체 지출에서 약 20%를 차지하여 부담요인으로 작용

○ 독립 주거에 따른 부담은 월세(하숙·기숙사·임대주택 포함) 이용시 (월 31.1만원, 연 373만원) 전세(월 15.1만원, 연 181만원)의 2배 수준

* 월세 비용시 부담 : 평균 보증금비용(565만원) × 은행보증대출금리(월 0.25%) + 평균 월세비용(월 29.7만원)

* 전세 비용시 부담 : 평균 보증금비용(6,014만원) × 은행보증대출금리(월 0.25%)

○ 특히, 독립 주거·월세 이용시 보증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

※ 보증금 1,000만원을 높이는 경우 월세비용 연 50만원(월 4.2만원) 절감 가능('17.9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인 4.97% 적용)

- 보증금이 1,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(69.5%)

* 1천만원 미만 69.5%, 1~2천만원 14.2%, 2~3천만원 8.4%, 3~5천만원 4.9%, 5천만원 이상 3.0%

- 반면, 월세비용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(55.8%)

* 30만원 미만 44.2%, 30~50만원 49.3%, 50~100만원 5.1%, 100만원 이상 1.4%

4 대출 현황

◆ 청년이 대학생에 비해 대출경험(고금리 금융기관 이용 경험 포함)·대출잔액이 많음

※ 설문조사시 채무 보유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 중 대출이용률(청년·대학생의 13.1%가 이용) 부분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남(신용정보원 자료('17.6월) 참조시 대출이용률은 19~24세 22.3% 19~31세 31.8%로 추정)

□ (청년) 약 5명 중 1명이 대출을 경험(20.1%, 現 이용자는 14.2%)하였으며 학자금 이외에도 생활비, 주거비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

* 대출목적 : 학자금 53.2%, 생활비 20.5%, 주거비 15.8%, 긴급자금 4.1%, 대출상환 3.5%, 취업준비 1.2%, 기타 12.9%

○ (대출기관)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나,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했던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(대출경험자의 13.0%)

-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은 접근성이 높은 캐피탈·카드사(대출 경험자의 9.4%)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

* 취업후상환학자금 49.1%, 일반학자금 7.6%, 은행 31.6%, 여전사 9.4%, 저축은행 1.8%, 대부업체 1.8%

-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워 선택했다는 비중이 높음

* 신속한 대출 가능 60.0%, 다른 금융회사 이용 불가 24.0%, 인터넷·전화 상담이 편리 8.0%, 광고를 통해 접근 용이 4.0%, 기타 4.0%

-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은 주로 전화, 인터넷,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

* 전화대출 48.0%, 인터넷대출 20.0%, 직접방문 12.0%, 대출모집인 8.0%

○ (대출금액) 평균 1,303만원으로 대학생 대출금액(593만원)의 2배 이상이며, 기관별로 은행권이 크고 장학재단은 비교적 작은 편

* 취업후상환학자금 856만원, 일반학자금 615만원, 은행 2,012만원, 여전사 979만원, 저축은행 500만원, 대부업체 400만원

○ (대출금리) 학자금 중심인 대학생 대출금리보다 높은 편이며,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은 금리 10%를 상회하는 경우가 다수

* 취업후상환학자금 3.1%, 일반학자금 2.6%, 은행 6.6%, 여전사 9.6%, 저축은행 14.3%, 대부업체 17.0%

- 어느 대출기관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리 수준이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

* (장학재단 이용) 금리 47.4%, 거치·상환기간 35.1% (은행 이용) 금리 52.9%, 신청절차 17.6%, 대출규모 11.8% (여전/저축은행/대부업체 이용) 금리 76.9%, 거치·상환기간 23.1%

- **(대학생)**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전인 대학생도 **10% 이상**이 대출을 경험(12.5%, 現 이용자는 12.0%)하였으며 주로 학자금 목적
 - * 대출목적 : 학자금 85.9%, 생활비 14.2%, 기타 1.9%
- **(대출기관)** 주로 장학재단과 은행을 이용하며,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한 경우는 대출경험자의 0.9%에 불과
 - * 취업후상환학자금 72.6%, 일반학자금 20.8%, 은행 6.6%, 저축은행 0.9%
- **(대출금액)** 평균 593만원으로 기관별로 은행권이 크고 장학재단이 비교적 작고, 장학재단 대출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상당수(36.4%)
 - * 취업후상환학자금 596만원, 일반학자금 353만원, 은행 1,191만원, 저축은행 800만원
- **(대출금리)** 장학재단 이용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는 낮은 편
 - * 취업후상환학자금 2.7%, 일반학자금 2.2%, 은행 3.3%, 저축은행 5.0%

5 연체경험 및 채무조정

◆ 연체경험률이 다른 연령 대비 높고, 채무조정 활용도가 낮음

※ 설문조사시 연체 경험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 중 중장기연체경험률(대출경험자의 2.9%가 경험) 부분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남 (신용정보원 자료('17.6말) 참조시 4.9%로 추정)

- **(연체경험)** 청년의 경우 연체경험률이 높은 수준(대출경험자의 15.2%)이며,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도 높음(대출경험자의 2.9%)
 - * 연체기간 : 1개월 미만 4.7%, 1~3개월 7.6%, 3~6개월 1.2%, 6개월 이상 1.7%
 - ※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.3%,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4.5%
- 대학생의 연체경험률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(대출경험자의 4.7%)
 - * 연체기간 : 1개월 미만 1.9%, 1~3개월 1.9%, 6개월 이상 0.9%
- **(채무조정)** 연체경험자 중 상당수(32.3%)가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
 -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다수(70%)가 고금리 금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·은행을 이용하였음에도 등록된 경우임
 - 또한,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다수(70%)가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채무조정 경험이 없음

6 정책금융 이용

◆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전반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

- **(한국장학재단)** 국가장학금, 등록금대출 제도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나, 생활비대출 제도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
 - * 국가장학금 90.5%, 등록금대출 78.3%, 생활비대출 52.2%, 생활관지원 19.6%
- 지원이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에 주로 기인
 - * 소득요건 미충족 67.7%, 성적요건 미충족 25.7%, 복잡한 신청방법 29.2%, 기타 3.5%
- **(정책서민금융)** 햇살론, 미소금융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
 - * 햇살론 44.3%, 미소금융 26.1%, 새희망홀씨 7.3%, 바퀴드림론 4.1%
- 지원이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도 미인지에 주로 기인
 - * 제도 미인지 53.9%, 신청요건 미충족 37.2%, 대출한도 부족 5.0%, 기타 3.9%

7 심층집단 면접조사시 제안사항

-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
 - (취업준비생 지원) 졸업 후 재학시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취업준비기간 중에도 정책금융 지원 필요
 - (주거비 지원) 월 지출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으므로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국가 주도의 기숙사 지원 등 제도 마련이 시급
- 정책금융 제도 개선 및 접근성 제고
 - (학자금대출 관리주체 단일화) 복수 학자금 연체채무의 관리주체가 상이(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)함에 따른 혼란 축소 필요
 - (온라인 신청) 청년·대학생 햇살론도 온라인 신청 허용 필요
 - (채무조정 안내 강화)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 필요

Ⅲ. 시사점 및 정책방향

□ 종합적인 청년·대학생 지원책 필요

- 청년·대학생의 수입 관련 부모·친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소득가구 청년·대학생인 경우 생활 전반에 있어 어려움이 큼
 - ☞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가구 청년·대학생 중심 지원방안 검토 필요
 - (학자금) 대출목적 중 학자금 비중이 높은 편
 - ☞ 장학금 확대, 학자금대출 지원조건 개선·채무조정 지원 등 필요
 - (생활비·취업준비자금) 취업준비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쉬움
 - ☞ 취업준비생 지원 강화 및 지속적인 생활비대출 지원 필요
 - (주거비) 월세 이용 비중이 높아 금융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
 - ☞ 임대주택·기숙사 등 확대 및 주거비 지원 필요

□ 신용정보 관리 개선 및 채무조정 지원 강화

- 청년·대학생의 연체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, 채무조정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채무조정 제도 활용도가 낮음
 - ☞ 신용정보 관리 개선,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·안내를 통해 재기지원 강화

□ 청년·대학생 대출 감독 강화

- 고금리대출 이용, 채무 보유는 취업·학업에 부정적 영향*을 미침
 - * 청년이 채무 보유시 하향 지원, 아르바이트·일용직 종사 등 영향(56.7%)
 - * 대학생이 채무 보유시 아르바이트·일용직 종사 등 영향(56.3%)
- ☞ 청년·대학생 대출에 대한 적절한 감독 필요

□ 정책서민금융 접근성 제고

- 정책서민금융보다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주요 원인은 정책서민 금융제도의 낮은 인지도와 우수한 고금리대출 접근성*
 - * 신속한 대출 가능, 다른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 가능
- ☞ 정책서민금융이 필요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접근성 제고 및 홍보 강화

Ⅳ. 향후 추진계획

□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부처·기관과 공유·협의할 계획

➔ 다음 사항을 포함한 '청년·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'을 검토한 후 연내 발표 추진

- 청년·대학생 햇살론*의 총공급한도('12~'17년중 2,500억원) 확대
 - * '12년~'17.10월중 총 2,275억원(62,836건) 지원

<청년·대학생 햇살론 제도 개요>

| 구분 | 생활자금 | 대환자금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대상 | •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,500만원 이하) • 대학(원)생(만 19세 이상) 및 청년(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,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) | |
| 용도 | 생활비, 주거비, 의료비, 교재비 등 | 6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 15% 이상의 고금리 대출 전환 |
| 한도 | 1,200만원 | |
| 금리 | 연 4.5 ~ 5.5%(보증요를 포함) | |
| 거치기간 | 최대 6년(군복무시 2년 추가) | |
| 상환기간 | 최대 7년 | |

- '18년중 약 6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재원(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) 확보 추진
- 주거자금·취업준비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대상·대출요건 등 제도개선도 병행 검토
- 청년·대학생(장학재단 대출 보유 다중채무자 등)의 재기지원을 위한 연체관리, 채무조정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
 - 채무조정 상환방식 다양화(체증·체감식 상환 허용) 등 검토
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참고1 청년·대학생의 금융상황 변화('12년 조사와 '17년 조사 비교)

□ **(자금흐름)** '17년 대학생의 자금부족 폭이 '12년 대비 감소
('12년 월 65.4만원 부족→'17년 월 52.1만원 부족)

- (수입) 소폭 증가('12년 월 47.0만원→'17년 월 50.1만원)
- (지출)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감소(월 7.1만원 감소)에 따라 소폭 감소('12년 월 112.4만원→'17년 월 102.2만원)
 - * 생활비('12년 월 34.7만원→'17년 월 36.8만원), 주거비('12년 월 7.8만원→'17년 월 9.6만원)은 소폭 증가
- (등록금) 부모님이 납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('12년 83.6%→'17년 88.1%), 장학금 의존 비중이 상승('12년 16.5%→'17년 27.6%)

□ **(대출)** '17년 대학생의 대출 이용률이 '12년 대비 하락('12년 18.3%→'17년 12.0%)한 가운데 대출잔액은 비슷한 수준

- (대출이용) 제2금융권 대학생대출 취급 제한 등에 따라 저축은행('12년 1.6% 이용), 대부업체('12년 1.0% 이용) 대출을 중심으로 하락
- (대출잔액) 저축은행·대부업체 잔액이 감소한데 비해 은행 잔액이 증가하여,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 유지('12년 537만원→'17년 534만원)

□ **(연체)** '17년 대학생의 연체 경험률(대출 경험자의 4.7%)은 고금리 금융기관 이용 감소 등에 따라 '12년* 대비 하락하는 경향

- * (취업후상환학자금)2.4%, (일반학자금)5.4%, (은행)6.7%, (저축은행·캐피탈)8.4%, (카드사)17.5%, (대부업체)10.2%
- 중장기연체 비중(대출 경험자의 0.9%)도 '12년* 대비 하락
 - * (취업후상환학자금)0.2%, (일반학자금)1.0%, (은행)2.9%, (저축은행·캐피탈)7.2%, (카드사)7.5%, (대부업체)6.1%

◆ 교육비 부담의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·주거비 등 부담에 따른 대학생의 자금부족, 대출 이용 등은 계속되고 있으나,

- 고금리금융기관 이용률·연체율 하락 등 채무의 질은 일부 개선
- ☞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, 장학재단 대출 지원을 지속하면서 생활비·주거비 지원 확대 필요

참고2 청년·대학생 실태조사 주요결과

1 자금흐름

① 평균 월 수입

| | 30만원 미만 |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|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|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| 200만원 이상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청년 | 4.0% | 8.7% | 13.2% | 40.7% | 33.4% | 850 |
| 대학생 | 8.9% | 47.1% | 39.8% | 3.5% | 0.7% | 850 |

② 유형별 수입 보유여부 <복수응답 허용>

| | 근로소득 | 사업소득 | 용돈 | 아르바이트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청년 | 69.8% | 4.1% | 20.1% | 12.1% | 850 |
| 대학생 | 1.4% | 0.2% | 88.4% | 30.4% | 850 |

③ 유형별 평균 월 수입

| | 근로소득 | 사업소득 | 용돈 | 아르바이트 | 기타 | 계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청년 | 129.0만원 | 13.0만원 | 7.8만원 | 7.8만원 | 0.0만원 | 157.6만원 | 850 |
| 대학생 | 1.8만원 | 0.8만원 | 34.0만원 | 13.4만원 | 0.1만원 | 50.1만원 | 850 |

④ 평균 월 지출

| | 30만원 미만 |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|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|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| 200만원 이상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청년 | 4.7% | 12.6% | 42.9% | 35.8% | 4.0% | 850 |
| 대학생 | 0.6% | 4.2% | 44.6% | 48.2% | 2.4% | 850 |

⑤ 유형별 평균 월 지출

| | 생활비 | 교육비 (등록금 포함) | 주거비 | 대출상환금 | 기타 | 계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청년 | 73.6만원 | 6.9만원 | 5.5만원 | 3.0만원 | 0.3만원 | 89.3만원 | 850 |
| 대학생 | 36.8만원 | 55.4만원 | 9.6만원 | 0.2만원 | 0.2만원 | 102.2만원 | 850 |

⑥ 최근 1년간 학자금

| | 500만원 미만 | 500만원 이상 1,000만원 미만 | 1,000만원 이상 1,500만원 미만 | 1,500만원 이상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대학생 | 22.8% | 74.4% | 2.7% | 0.1% | 850 |

⑦ 학자금 납부 방법 <복수응답 허용>

| | 부모님 | 장학금 | 본인 | 대출 | 친인척 등 지인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대학생 | 88.1% | 27.6% | 6.0% | 6.0% | 0.6% | 850 |

⑧ 자금부족을 느끼는지 여부

| | 느낌 | 느끼지 않음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청년 | 61.3% | 38.7% | 850 |
| 대학생 | 51.3% | 48.7% | 850 |

⑨ 자금부족 원인 <복수응답 허용>

| | 생활비 | 학자금 | 취업준비 자금 | 주거비 | 대출상환 | 기타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청년 | 79.5% | 4.0% | 13.4% | 10.4% | 8.4% | 7.3% | 521 |
| 대학생 | 93.3% | 20.0% | 5.3% | 4.4% | 1.6% | 1.4% | 436 |

⑩ 자금부족 해결방법 <복수응답 허용>

| | 부모·친지 도움 | 추가 근로 | 본인 대출 | 정부지원·보조 등 | 장학재단 장학금 | 해결않음 | 기타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청년 | 51.1% | 14.0% | 5.0% | 0.2% | 1.0% | 34.5% | 1.5% | 521 |
| 대학생 | 75.5% | 14.0% | 3.6% | 0.7% | 16.1% | 14.4% | 1.4% | 436 |

2 근로 현황

① 근로 여부

| | 일을 하고 있다 | 구직활동 중이다 | 일도 안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청년 | 80.4% | 9.2% | 10.5% | 850 |
| 대학생 | 26.6% | 0.8% | 72.6% | 850 |

② 근로 목적 <복수응답 허용>

| | 단순용돈 마련 | 생활비 마련 | 학자금 마련 | 취업·사업경험으로 미래준비 | 주거비 마련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대학생 | 73.9% | 49.1% | 16.4% | 3.1% | 2.7% | 226 |

③ 고용 형태

| | 상용근로 (계약기간 1년 이상) | 임시근로 (계약기간 1개월~1년) | 일용근로 (계약기간 1개월 미만) | 사업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청년 | 72.3% | 21.7% | 1.6% | 4.4% | 683 |
| 대학생 | 3.5% | 74.8% | 20.4% | 1.3% | 226 |

④ 취업준비기간

| | 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 1년 미만 | 1년 이상 2년 미만 | 2년 이상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청년 | 54.4% | 27.9% | 12.0% | 5.8% | 761 |
| 대학생 | 85.0% | 10.7% | 3.0% | 1.3% | 233 |

⑤ 취업준비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

| | 항상 느낌 | 가끔 느낌 | 보통 | 거의 느끼지 않음 | 전혀 느끼지 않음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청년 | 27.9% | 32.3% | 28.9% | 8.9% | 2.0% | 761 |
| 구직중 | 48.7% | 32.1% | 10.3% | 5.1% | 3.8% | 78 |
| 대학생 | 16.3% | 28.8% | 27.5% | 15.5% | 12.0% | 233 |

⑥ 취업준비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 원인 <복수응답 허용>

| | 생활비 부족 | 학원비·교재비 | 학자금대출 상황 | 일반대출 상황 | 주거비 부족 | 기타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
| 청년 | 84.1% | 25.8% | 7.4% | 3.1% | 8.7% | 5.9% | 458 |
| 대학생 | 91.4% | 29.5% | 15.2% | 0.0% | 5.7% | 1.0% | 105 |

3 주거 현황

① 독립주거 여부

| | 부모와 함께 주거 | 부모와 별도로 주거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77.1% | 22.9% | 1,700 |

② 독립주거시 주거 형태

| | 자가 | 전세 | 월세 | 임대주택 | 기숙사 | 하숙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11.0% | 13.6% | 51.0% | 1.0% | 19.5% | 3.8% | 390 |

③ 독립주거·월세(임대주택 포함) 이용시 보증금

| | 1천만원 미만 |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|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|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| 5천만원 이상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69.5% | 14.2% | 8.4% | 4.9% | 3.0% | 203 |

④ 독립주거·월세(임대주택·기숙사·하숙 포함) 이용시 월세비용

| | 30만원 미만 |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|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| 100만원 이상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44.2% | 49.3% | 5.1% | 1.4% | 294 |

4 대출 현황

※ 설문조사시 채무 보유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 중 대출이용률(청년·대학생의 13.1%가 이용) 부분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남 (신용정보원 자료('17.6말) 참조시 대출이용률은 19~24세 22.3% 19~31세 31.8%로 추정)

① 대출 경험 여부

| | 있음 | | 없음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현재 대출이 있음 | | | |
| 청년 | 20.1% | 14.2% | 79.9% | 850 |
| 대학생 | 12.5% | 12.0% | 87.5% | 850 |

② 대출 목적 <복수응답 허용>

| | 학자금 | 생활비 | 주거비 | 취업준비 자금 | 대출상환 | 긴급자금 | 기타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청년 | 53.2% | 20.5% | 15.8% | 1.2% | 3.5% | 4.1% | 12.9% | 171 |
| 대학생 | 85.9% | 14.2% | 0.0% | 0.0% | 0.0% | 0.0% | 1.9% | 106 |

③ 대출 기관 <복수응답 허용>

| | 취업후 상환 학자금 | | 은행 | 상호 금융 | 정책 서민 금융 | 여전사 | 저축 은행 | 대부 업체 | 기타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| 일반 학자금 | | | | | | | | | |
| 청년 | 49.1% | 7.6% | 31.6% | 1.2% | 2.9% | 9.4% | 1.8% | 1.8% | 4.1% | 171 |
| 대학생 | 72.6% | 20.8% | 6.6% | 0.0% | 0.9% | 0.0% | 0.9% | 0.0% | 0.0% | 106 |

④ 고금리금융기관 선택 이유

| | 신속한 대출 가능 | 다른 금융회사 이용 불가 | 인터넷·전화 상담이 편리 | 광고를 통한 접근이 용이 | 기타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60.0% | 24.0% | 8.0% | 4.0% | 4.0% | 25 |

⑤ 고금리금융기관 대출 경로

| | 전화대출 | 인터넷대출 | 직접방문 | 대출모집인 | 기타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48.0% | 20.0% | 12.0% | 8.0% | 12.0% | 25 |

⑥ 대출금액(단위 : 만원)

| | 취업후 상환 학자금 | | 은행 | 상호 금융 | 정책 서민 금융 | 여전사 | 저축 은행 | 대부 업체 | 평균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일반 학자금 | | | | | | | | | |
| 청년 | 856 | 615 | 2,012 | 1,500 | 1,400 | 979 | 500 | 400 | 1,303 | 171 |
| 대학생 | 596 | 450 | 1,191 | - | 100 | - | 800 | - | 593 | 106 |

⑦ 대출금리

| | 취업후 상환 학자금 | | 은행 | 상호 금융 | 정책 서민 금융 | 여전사 | 저축 은행 | 대부 업체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일반 학자금 | | | | | | | | |
| 청년 | 3.1% | 2.6% | 6.6% | 7.5% | 5.0% | 9.6% | 14.3% | 17.0% | 171 |
| 대학생 | 2.7% | 2.1% | 3.3% | - | 4.0% | - | 5.0% | - | 106 |

5 연체경험 및 채무조정

※ 설문조사시 연체 경험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 중 중장기연체경험률(채무자의 2.9%가 경험) 부분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남 (신용정보원 자료('17.6말) 참조시 4.9%로 추정)

① 연체 경험 여부 및 연체기간

| | 있음 | | | 없음 | 응답 인원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
| | 1개월 미만 |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| 3개월 이상 | | |
| 청년 | 15.2% | 4.7% | 7.6% | 2.9% | 171 |
| 대학생 | 4.7% | 1.9% | 1.9% | 0.9% | 106 |

②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 여부 및 채무조정 경험 여부

| | 있음 | | 없음 | 응답 인원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| 채무조정 경험 | 채무조정 미경험 | | | |
| 청년·대학생 | 32.3% | 9.7% | 22.6% | 67.7% | 31 |

6 정책금융

① 한국장학재단 제도 인지도

| | 국가장학금 | 학자금대출 (등록금) | 학자금대출 (생활비) | 생활관 지원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90.5% | 78.3% | 52.2% | 19.6% | 1,318 |

② 한국장학재단 지원이 필요함에도 미이용한 원인 <복수응답 허용>

| | 소득요건 미충족 | 성적요건 미충족 | 복잡한 신청방법 | 기타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67.7% | 25.7% | 29.2% | 3.5% | 226 |

③ 정책서민금융 제도 인지도

| | 햇살론 | 미소금융 | 새희망홀씨 | 바꿔드림론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44.3% | 26.1% | 7.3% | 4.1% | 1,700 |

④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함에도 미이용한 원인

| | 제도 미인지 | 신청요건 미충족 | 대출한도 부족 | 기타 | 응답 인원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
| 청년·대학생 | 53.9% | 37.2% | 5.0% | 3.9% | 180 |